

**담당 : 홍보팀 임정수 차장ㅣ Office : 02)560-4434 ㅣ Mobile : 010-7680-8653 ㅣ E-mail :** **media@klpga.org**

**2R 오전조 주요선수 코멘트**

**선두 서어진, 코스레코드 경신 김민별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맥콜 · 모나 용평 오픈 with SBS Golf |
| 2 | 기 간 | 2025년 6월 27일(금) ~ 6월 29일(일) |
| 3 | 장 소 | 버치힐 [HILL(OUT) / BIRCH(IN) 코스]  |
| 4 | 주 최 | ㈜일화, 모나 용평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0억 원 (우승상금 1억 8천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429야드 |
| 8 | 참가인원 | 132명 |
| 9 | 주요출전선수 | 박현경, 노승희, 이예원, 홍정민, 이동은, 이가영, 방신실, 김민선7, 정윤지유현조, 김민주, 박보겸, 고지우, 이소영, 임희정, 최예림, 김시현, 정지효서지은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(생중계) | [1라운드] 11시 ~ 17시[2라운드] 11시 ~ 17시[최종라운드] 10시 ~ 16시 |

**◈ 2R 6언더파 66타, 중간합계 14언더파 130타 공동 1위 서어진(13시 45분 기준)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134>

**소감**

오늘 전체적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샷과 퍼트 모두 잘 됐다. 중간에 흐름 끊길 뻔했는데, 집중해서 마지막 세 개 홀에서 버디하며 잘 마무리한 것 같다. 만족한다.

**흐름 끊긴 것?**

14번 홀 보기가 나왔는데, 보기가 나올 상황이 아니었다. 어제 오늘 노보기로 오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릴 뻔했지만, 다행히 바로 정신을 차렸다.

**어제 오늘 코스 좀 달랐던 점이 있었나?**

크게 없었다. 오늘도 날씨 습해서 그린 잘 받아줬는데, 핀 위치가 어제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웠다.

**오후?**

그린 더 잘 받아주고 느려질 것 같아서 오후조 선수들도 스코어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.

**컨디션?**

습해서 덥고 그런 거 외에는 컨디션 좋다.

**생애 첫 승에 도전하게 됐는데, 내일 각오?**

우승 정말 하고 싶고 우승 생각 하겠지만, 그게 내 플레이에 도움되지는 않더라. 어제 오늘 내 것만 하자는 생각으로 쳤더니 좋은 성적 났기 때문에, 내일도 그렇게 치겠다.

**내일 전략?**

위험한 홀이 전반, 후반 각 1개 홀이 있다. 전반 8번, 후반 13번 홀이 조금 위험한데, 그 홀에서만 스코어 잘 지키고 나머지는 공격적으로 치겠다.

**우승 스코어 예상한다면?**

내일도 선수들이 분명 스코어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. 20언더파 예상한다.

**◈ 2R 10언더파 62타, 중간합계 11언더파 133타 공동 5위 김민별(13시 45분 기준)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10002>

**오늘 경기 소감**

어제 경기가 잘 안 풀려서 마음을 비우고 왔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플레이 잘 됐다. 특히 퍼트가 잘 됐는데, 감이 정말 좋아서 모든 퍼트가 자신이 있었다. 마지막 홀에서도 넣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들어갈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.

**코스레코드 경신했는데?**

코스레코드까지 경신했다고 하니 기분 좋다. 플레이하면서 타수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고 그냥 ‘어제보단 잘 되겠지’라는 편한 마음으로 쳤더니 퍼트가 잘 떨어져 주면서 플레이가 잘 풀리고 코스레코드까지 경신할 수 있었다.

※ 종전까지 맥콜 · 모나 용평 오픈 with SBS Golf 코스레코드: 최혜진 9언더파 63타(2017년 초정탄산수 용평리조트 오픈 with SBS 최종라운드)

**어제?**

어제는 퍼트가 정말 1개 빼고는 다 빠졌다. 정말 안 되는 날이었다.

**10언더파 처음인가?**

골프 치면서 10언더파 처음 쳐봤다. 라이프 베스트다.

**위기는 없었나?**

특별히 없었다. 그냥 투 온이 되는 파5홀 두 개가 있는데, 그 홀에서 티 샷이 살짝 미스가 나서 투 온 트라이를 하지 못한 게 아쉽다.

**올 시즌 지금까지 성적 어떻게 생각하는지?**

시즌 초 아이언 거리감 좋지 않았고 퍼트도 부족해서 컷 탈락도 꽤 있었고 잘 풀리지 않았다. 그래도 아쉬운 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고 실제로 보완이 되고 있다고 느껴진다.

**통산 1승이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이었다. 일반 스트로크 방식에서 우승에 욕심 날 것 같은데?**

그렇다. 우승에 대한 갈망 있다. 상반기 우승하는 것이 목표라 내일 열심히 해보겠다.

**내일 각오?**

코스가 짧아서 찬스를 많이 만들 수 있다. 찬스 왔을 때 퍼트를 성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. 하지만 내일도 변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. 오늘처럼 그냥 타수 생각 안하고, 오늘의 좋은 퍼트 감을 유지하면서 공격적으로 쳐보겠다.